

HOME > 뉴스 > 자치구공단

마포구공단,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추석 민생현장 점검

✎ 김혜란 기자 | Ⓞ 승인 2025.10.14 20:00

'마포농수산물시장 활성화와 상인 지원 앞장' 도모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 가운데)을 필두로 정양호 상인회장, 한일용 공단 이사장(각각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일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마포구 관계자 및 시장 상인들과 함께 기념촬영 중이다.

[시정일보 김혜란 기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일용, 이하 공단)은 지난 10월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추석을 앞두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일정으로, 공단은 현장에서 상인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전 장관은 수산물 점포를 돌며 멸치를 직접 구매하고, 환급 부스를 찾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면서 전통시장 이용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공단은 장관 일행과 함께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 부담 완화 및 고객 유입 확대를 위한 현장 지원 대책을 공유했다.





추석 성수품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 중인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사진 가운데)

이 자리에서 한일용 이사장은 “마포농수산물시장은 마포구민의 생활 기반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이라며 “공단은 상인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서비스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10월1일부터 5일까지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했으며, 공단도 행사 운영을 지원했다.



김혜란 기자

저작권자 © 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